

배추·무·대파 값 상승... 농민들 모처럼 미소

수요 늘고 경작 면적 줄어

배추 52%, 대파 64% 올라

가을배추, 가을무, 대파 등 김장철 채소 '삼총사'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하면서 전남지역 농민들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번지고 있다. 최근 수요가 늘고, 경작 면적은 줄어든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밭떼기 3.3㎡당 가을배추는 4000~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2000원, 가을무는 3500~4000원으로 1000~1500원, 대파는 800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4000원이 상승했다. 도매가격도 지난 18일 현재 배추는 포기당 1352원으로 지난해 대비 52%, 대파 역시 kg당 1721원으로 64%의 증가폭을 보였다. 무는 kg당 464원으로 0.7% 올랐다.

특히 배추는 23일 포기당 1900원에 도

매 거래되는 등 고공행진중이다.

이는 지난해 가격 폭락으로, 올해 이들 채소의 경작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보고 있다.

올해 전남도내 가을배추와 대파 재배면적은 각각 3349ha, 3277ha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03ha, 3400ha에 비해 654ha(16.3%), 123ha(3.6%) 감소했다. 반면 가을무는 지난해 815ha에서 올해 987ha로 172ha(21.2%) 증가했다.

전남도내 가을배추와 대파 재배면적은

전국의 26%와 39%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들에게 수요가 늘고 있고 가격도 안정적인 보리나 밀 등 맥류 생산을 권장하면서 가격 하락폭이 큰 채소 재배 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와는 별도로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 중심의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하고 적정 재배 면적을 권장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통악기로 하나 된 아시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이틀 앞둔 23일 광주시 남구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연장에서 브루나이·캄보디아·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국내외 연주자들이 각국의 전통악기를 이용해 'One Asia'라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中 수출용 쌀 가공공장 선정 지자체 경쟁 치열

농식품부, 1차 해남 옥천농협 등 10곳 뽑아... 연말 5곳 최종 선정

중국 쌀 수출 교두보로 여겨지는 가공공장 선정을 두고 전국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산 쌀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말께 '대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RPC·미곡종합처리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로부터 중국 쌀 수출을 희망하는 가공공장을

추천받아 최근 전문가 심의를 거쳐 1차로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업체를 지자체별로 보면 전북과 충남 각 2곳, 경기, 전남, 강원, 충북, 경남, 경북 각 1곳이다. 전남에선 해남 옥천농협이 선정돼 지난 20일 농식품부의 실사를 받았다. 전남도는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가공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을 농식품부에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가공공장 위생상황 등 현지실사를 거쳐 연말께

5곳 안팎을 최종 선정해 이들 업체 위주로 내년 2월부터 중국에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식품부에 등록된 가공공장(업체) 위주로 중국 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도인 전남업체가 포함돼야 한다"며 "1차 관문을 통과할 때도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최종 선정을 앞두고 경쟁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산 쌀의 국내 수입량은 2012년 16만6000t, 2013년 15만1000t, 2014년 20만

5000t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중국에 수출한 한국산 쌀은 한 톤도 없다.

농정당국은 중국 소비는 소득증가와 높은 식생활 수준으로 유기농, 수입쌀 등 고급 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산 쌀은 중국산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일본, 대만산과 비교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고가미 전략'과 '중저가 시장' 두 트랙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축적 및 한류를 활용한 식문화와 연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대 중국 쌀 수출 전략과 발맞춰 중국 쌀 수출 대행업체와 바이어를 발굴하고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50억 규모 '엔젤투자 매칭 펀드' 운영

정부 40억·도 10억 출자

지역 우수기업 자금 투자

전남도가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를 결성, 기업 직접 투자에 나선다.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에는 정부가 40억원, 전남도가 10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앞으로 전남도는 10년간 지역 우수 기업을 발굴해 펀드자금에서 직접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 대상은 창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기업 가치가 50억원 이하인 기업이다. 펀드자금은 엔젤투자자가 지역기업에 우선 투자하면 대응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이외에도 2016년 130억원 규모의 '빛가람 중소기업 펀드', 250억원 규모의 '빛가람 에너지밸리 펀드', 200억원 규모의 '전남 창조경제 펀드' 등을 결성해 기업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종선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전남 엔젤 투자 매칭 펀드 결성을 통해 자본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펀드를 지속적으로 결성해 지역 기업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13만7000개에 달하는 사업체의 투자 확대와 경영 안정을 위해 연간 24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10월부터 3.0%에서 2.7%로 인하했고, 운영자금 대출 자금의 경우 2.5%의 이자를 지원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유망 중소기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등에는 3.0%의 이자를 우대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민간위탁사업 관리감독 부실"

우승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 민간위탁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사항인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전남도가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영암1)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전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21개 부서에서 125건, 415억원 규모의 사업을 단체나 기관에 위탁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조례' 제7조는 수탁 기관 선정 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

구하고, 125건 중 44%인 56건에 대한 공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감독도 부실했다.

'민간위탁조례' 제13조는 위탁사무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돼있지만, 전남도는 위탁사업 중 단 6건만 감사 또는 만족도 조사를 했을 뿐 나머지 119건은 감사를 벌이지 않았다.

우 의원은 "전남도가 경영성과 평가나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같은 민간기관에 사무위탁을 갱신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업무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기적인 감사와 사업 평가는 민간위탁 지속여부의 핵심이기에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내버스 노선개편 절차 착수

10년만에... 용역 입찰공고

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10년 만에 단행하는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3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시는 다음 달 안에 제안서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주요 생활권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30분 급행버스 노선' 개발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선개편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께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면 개편 이후 10년 만이다.

개편안에는 수완·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의 접근성, 고속철도(KTX)·도시철도 2호선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요 생활권과 교통 사각지대의 대중교통체계를 최적화하는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증-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